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쿠폰 강매 말성

시, 내달 2~4일 개최 앞두고 공무원·유관기관 할당

알바생들이 맛집 23개 업소 선정해 신뢰성도 의문

순천시가 다음달 개최 예정인 ‘2016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수 억원대의 쿠폰을 강매하고, 참가 음식점 소 선정 과정에서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말성을 빚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 800만명의 바잉파워를 원도 심 활성화와 연결 시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총 4억 5000만 원을 들여 도시 재생형 축제인 ‘2016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테이크아웃형 음식 개발로 순천 대표 먹을거리 육성, 푸드와 문화예술 콘텐츠 접목, 추석 판매존 운영 등으로 돈이 되는 축제를 통해 기존 축제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원

도심의 중앙로(의료원로터리~남교 오거리)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음식의 전시 판매와 유명 가수 초청공연, 패션쇼와 풍물쇼, 청년창업존 등을 운영해 순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순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수익을 내는 전략 대신 수 억원대에 이르는 쿠폰을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강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공무원 1인 기준 1만~10만원, 각 읍·면·동에는 200여만원에서 1600여 만 원까지 쿠폰 판매를 할당했으며, 유관기관에도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순천시의 강매로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통장은 물론 주민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강매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16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포스터

실제 일부 읍면동에서는 쿠폰 판매 실적 경쟁마저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순천 맛집 23개업소 선정 과정도 신뢰성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다.

순천맛집 선정은 시에서 순천외식업지부에 위탁했으나, 맛 평가단 50명 중 42명이 일반 주부와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맛 평가단은 맛집을 선정하며 식대로만 2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순천지역 음식점업 관계자들은 “순천맛집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치르는 행사다 보니 미숙한 부분이 많다”며 “쿠폰은 강매가 아니고 홍보목적으로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대접한 음식 낙안읍성 8가지 특별한 맛 ‘팔진미’ 인기

순천시 낙안읍성의 팔진미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팔진미(八珍味)는 ‘성대한 음식상에 올리는 여덟 가지 음식의 진귀한 맛’이라는 뜻이다.

낙안 팔진미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낙안읍성을 방문한 이순신 장군께 고을 주민들이 읍성 주변에서 나는 8가지 귀한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데서 유래됐다. 팔진미 음식 재료는 금전산 석이버섯, 백이산 고사리, 오봉산 도라지, 제석산 더덕, 남내리 마나리, 성북리 무, 서내리 녹두묵, 용추전어(불채 용소의 맑은 민물에서 자란 물고기)를 말한다.

팔진미는 그 동안 구전돼 오다가 순천시에서 전문가의 연구와 고증을 통해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사도

밥상, 선비밥상, 팔진미 비빔밥, 변경쇠 수육, 떡갈비, 육너 만두 등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됐다.

팔진미 비빔밥을 맛본 한 관광객은 “음식 맛도 좋지만 낙안읍성을 돌아보고, 이순신장군께 대접한 음식을 접하게 되어 막걸리까지 한잔하니 조선시대를 회상하며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제23회 낙안민속문화축제(10월 14일~16일) 개막식에서 ‘팔진미 비빔밥 퍼포먼스’를 마련하고, 관광객에게 시식 체험의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팔진미는 순천시 낙안읍성 난전 4호점 팔진미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지난해 살림규모 전년보다 976억원 증가 총 1조1945억원 달해

순천시는 “2015년 살림규모가 2014년 보다 976억원(8.9%)이 증가한 1조 194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650억원이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로부터 받은 재원은 6269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2조9971억 원이며, 채우는 117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시 단위 자치단체 평균액 757억원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 재정자립도는 29.92%, 재정자립도는 68.19%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 공시를 통해 시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중점 추진 사업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사업을 심의하고 공개 내역을 확정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순천문화음성 달빛야행’ 방문객들이 다양한 야간 체험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읍성 ‘달빛야행’ 역사문화관광 활기 불어넣다

3일간 2만6000여명 찾아

도심 상권 활성화도 도움

순천문화음성 달빛야행이 문화재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문화의 거리와 매산동 일원에서 지난 12일부터 3일간 열린 문화재 야간 관람에 총 2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지금까지 문화재는 지정된 관람시간에 눈으로 보는 것이 관례적이었지만, 이번

달빛야행은 야간에 문화재를 개방하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마련했다.

달빛야행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재와 어울리는 품격높은 공연, 길거리 공연 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팔마비 탁본, 성벽쌓기 체험, 장명석등 만들기 체험 등 천년 역사 체험과 호패제작, 근대복장 복식체험, 병원체험을 할 수 있는 근대 역사문화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장명석등 만들기 체험과 호패제작은 줄을 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 체험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번 달빛야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문화의 거리 주변 상가에는 준비된 식재료가 떨어질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빛야행은 문화재에 경관 조명으로 빛을 더해 도시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단순한 축제가 아닌 야간 문화재 투어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순천민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을 연계해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카톡 ‘순천시청’ 개설...시민과 SNS 소통

시정·문화·재난 정보 제공

올해 친구맺기 1만명 목표



순천시는 “모바일 SNS를 통한 밀착형 소통을 위해 카톡 오픈아이디인 ‘순천시청’(사진)을 개설하고 시방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시카톡 오픈아이디는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한꺼번에 소식을 보낼 수 있는 대량 발송과 1대1 대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순천시는 카톡 오픈아이디 ‘순천시청’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시정 정보를 비롯한 문화행사 및 재난·안전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문의를 1대1 형식으로 질의응답할 계획이다.

특히 카톡 오픈아이디 ‘순천시청’은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빠른 홍보로 시민 안전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톡 오픈아이디 ‘순천시청’은 핸드폰의 카카오톡을 실행한 뒤 친구찾기 항목에서 ‘순천시청’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카톡 오픈아이디 ‘순천시청’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과 1대1로 대화 가능하며, 간단한 민원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 해 카톡 오픈아이디 ‘순천시청’ 친구 1만 명을 목표로 하는 폭염에 대한 빠른 홍보로 시민 안전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